

‘트럼프 리스크’, 포폴리즘으로 막을 수 없다



김 문 호 의
단 상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셔야 할 것 같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상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는 데 대한 기업들의 절규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되자 ‘집중 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 (상법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숫자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현행 ‘단순투표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될 수 있다.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 장악력을 키우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뿐만 아니다. 이른바 ‘로란봉투법’ 입법 움직임도 슬그머니 고개를 내민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취지와 명분이 아

무리 좋아도 지나친 규제가 기업 경영에 지장을 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든 내수와 고용 시장에 한파를 몰고 올 게 뻔하다. “상법개정안 등과 맞물린 한국 주식이 ‘초특가 세일(deeply discounted)’에 돌입했다”라는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돌턴인베스트먼트의 분석이 섬뜩하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부럽기까지 하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 “중국 관세 보복조치, 중국에 좋지 않아” 등등 경고를 서슴지 않는다. 세상은 ‘폭주 기관차’ 앞에서 불합리성을 따질 여유가 없다. 대만 정부는 ‘실리콘 방패’를 내려놨다. 미국에서 2나노 칩 생산 투자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액화천연가스 등을 더 많이 구매기로 했다.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측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눈엣가시로 여기는 마약사범의 범죄인 인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중국의 테무와 쉬안을 겨냥해 19%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을 향한 유화책이다. 국내 기업중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2028년까지 총액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각종 규제에 기업

을 옥죄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번 집을 떠난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탈중국’ 저지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기업은 20곳에 그쳤다. 2020년 이후 가장 적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유턴기업은 23곳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적은 수준이다. 미국의 유턴기업은 2021년 1800곳이 넘었다. 일본도 유턴기업이 매년 600~700곳에 달한다.

화(禍)는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 한국경제가 그 짝이다. 수출 부진과 내수 불황,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3월 고용률은 62.5%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9.3%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려면 기업들을 불러들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하는 일이 등 떠미는 모양새다. 개혁을 이유로 기업들을 오히려 해외로 내몰고 고용 시장에 한파를 불러온다면 우리가 원하는 경제성장은 요원할 것이다. 아직도 정치권만 판 세상에 살고 있다.

/자본시장부장 kmh@metroseoul.co.kr

같은 상품권, 다른 가격



김 지 수 첩
(금융부)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 5조5000억원을 제시했다. 지난 2020년 발행량은 2조5000억원 수준이었는데, 5년 새 두 배가 넘게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현금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 각종 ‘페이앱’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상품권으로 발급된다. 액면가보다 싼 가격

에 구매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매장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해 세금을 투입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만 하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상품권의 취급 형태에 따라 할인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디지털상품권에 10%의 할인을 상시 제공한다. 설·추석 등 명절에는 할인율이 15%까지 오른다. 구매액의 약 10~15%를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수시로 진행한다. 그와 비교해 지류상품권의 할인율은 5%로 고정됐다. 디지털상품권에 적용되는 각종 이벤트까지 고려하면, 같은 값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최대 30%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는 부정 유통 가능성이 큰 지류상품

권의 유통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상품권에 혜택을 준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상권 이용률이 높은 고령자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주고 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렵다.

특히나 중기부는 올해 설 연휴를 전후해 한달 동안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이 1조 267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8393억원은 디지털상품권이었던다. 이미 수요의 80% 이상이 디지털상품권으로 이동했는 데도, 지류상품권에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역차별’을 지속중인 셈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디지털화폐’를 테스트하면서 특정 품목의 구매를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온누리상품권에도 ‘세금 투입’을 납득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asj1231@

오늘의 운세 4월 24일 (음 3월 2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외로워 있던 어려운 일이 풀린다. 48년생 증권도 계획 없는 투자는 손실로 이어진다. 60년생 가족은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72년생 마음에서 마음인 심상인(心心相印)이다. 84년생 돈 자랑하다 체면 손상된다.



37년생 옛 은인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49년생 살가운 권모술수를 조심해야 할 듯. 61년생 이성을 바꾸어가며 만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마라. 73년생 더위는 더위로 해결해보자. 85년생 분수를 알아야 분수를 지킬 것 아닌가.



38년생 직장에서 도덕심은 나를 오래도록 이끌어준다. 50년생 조상님 제사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62년생 양다리 걸치지 마라. 74년생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다 쓸모가 있다는 것. 86년생 진정한 부자는 베풀면서 겸손해한다.



39년생 삼재팔난이라 했으니 먼저 배려하라. 51년생 종일 시장을 다니며 물건을 구경한다. 63년생 너무 계산하다가 늘 좋은 사람 놓친다. 75년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87년생 시대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40년생 옷이 남루하여도 슬퍼말자. 52년생 돈도 능력이니 부지런히 벌여라. 64년생 태풍 뒤에는 언제나 하늘은 맑아진다. 76년생 간사 한자에 모함해 걸리지 않게 신중하게. 88년생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격려하여 기쁘다.



41년생 본심이 밝고 맑다면 행복한 결과가 온다. 53년생 약속이나 기한이 늦어져도 다투지 마라. 65년생 자격증 시험합격 소식. 77년생 인간사(人間事)마(塞翁之馬). 89년생 집이 없어도 화목함이 있으니 다시 일으키게 된다.



42년생 이리저리 어지럽게 출어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54년생 회로애락은 마음이 집에서 좌지우지. 66년생 남의 말에 간섭하지 마라. 78년생 마음이 어진 사람의 연동은 이익이 된다. 90년생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한다.



43년생 죽음의 허무함이 있다면 인생의 즐거움도 있게 마련. 55년생 연인의 자취를 찾는 길이 없다. 67년생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이 간섭이라 하지만. 79년생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이 없다. 91년생 기술력은 좋으나 세상 물정은 모른다.



44년생 비뿔 때 간널목에서 차량 주의해야. 56년생 조부모님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듯. 68년생 제 허물은 생각 않고 남의 잘못만 고집어낸다. 80년생 뜻 맞는 사람이 모이면 못할 일이 없다. 92년생 최소한 자기 주변에 인색하지 말자.



45년생 잘난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57년생 때로는 안경을 벗어보라. 69년생 영업에서 실적이 없으면 늘 피곤한 것이다. 81년생 주택 집에 소나무를 심고 동반 성장하자. 93년생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는 날.



46년생 작은 부주의로 일을 그르치니 잘 살펴라. 58년생 남의 탓하지 말고 현명하게. 70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82년생 약한 자가 강자에게 달갈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있다. 94년생 역마의 기운으로 멀리 있는 길 떠나 객지 밥을 먹는다.



47년생 과시에 치중하면 복득을 깎는다. 59년생 학력위조는 결과가 시끄럽다. 71년생 말이 많다 보니 내면이 빈곤. 83년생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꾼다. 95년생 동서고금 돈 자랑하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라고 하는 글귀를 보라.



김상회의四季

산이 높으면

높은 산은 오르기도 힘들지만, 그 정상에 오르면 고도만큼 시야도 넓어지고 당연히 느낌과 감상도 차원이 다르다. 당연한 이치이다. 정상은 정상대로 골짜기는 골짜기대로 높고 낮음이 극명하니 웅장하고 아름답기가 남다르다. 대부분 사람은 높은 산만 보고 골은 보지 못할 수가 있다. 이는 인간사에도 그러해서 사람이 성공하면 정상에 올랐다면 성공한 현재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시련은 그저 미화된 무용담처럼 여기며 가볍게 넘긴다. 그러나 우리는 솔하게 본다.

나름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모습,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생각해본다. 만약 그들이 유명인이 아니었다면 한 개인의 망신살 정도에서 끝날 일로 치부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 일이 온 세상에 가십거리가 된다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썼다. “죽을 용기로 살지, 모욕을 견디기 어려웠나...” 작금의 여러 비극을 보자면 이런 일들이 적지 않다. ‘노인과 바다’나 ‘무기여 잘 있거라’ 등의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이도 작가적 성공을 거두었어도 스스로 무력감과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생을 포기했다.

사업가 연예인 정치인 중에도 젊은 시절에 일찍 이름을 날린 경우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며 방황의 늪에 빠지거나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다. 사주상 조후가 원만하지 않고 한 기운으로 몰려있을 경우를 그렇게 본다. 영웅적 삶을 사는 경우의 사주가 보통 그러하다. 잘 풀리면 영웅이요, 안 풀리면 굴곡이 심한 삶이다. 평범한 가운데는 운기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에 비견되는 고산 심곡을 반기지 않게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중하스도쿠 100

할인도서

9 2 7 1 4 9 6 8 3

1 2 8 6 8 9 9 2 7

8 6 9 2 8 7 1 9 1

6 8 9 7 9 1 8 2 1

9 7 1 8 6 2 1 8 9

2 8 1 9 1 8 7 6 9

8 1 8 9 9 6 2 7 1

1 9 2 8 7 8 9 1 6

7 9 6 1 2 1 8 9 8

1 8 9 9 6 8 7 2 1

6 2 9 1 9 7 8 8 1

7 1 8 6 1 2 6 9 9

2 7 1 6 2 8 8 9 9

8 6 9 9 1 1 8 7

9 9 8 7 8 1 6 2

8 6 2 1 7 9 9 2 8

8 1 2 2 8 9 9 7 6

9 9 7 8 1 6 2 1 8